

## 휴가철 후의 자동차 관리

즐거운 휴가길. 몸도 마음도 상쾌하게 재충전되어 기분 좋지만  
휴가다녀오느라 지친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오늘 휴가를 다녀와 몹시 지쳐 있는 자동차를 기분 좋게 해주자.

### 1. 타이어와 휠

보통 때는 잘 살펴보지 못했더라도 먼길을 달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타이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비포장 도로를 박력 있게 달리다 보면 휠과 타이어에 큰 충격이 전해져 휠이 휠 염려가 있다. 휠이 휘면 코너를 돌 때 차가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직진 때 핸들이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트레드나 휠에 낀 이물질은 제거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트레드 사이에 작은 못이나 뽕족한 것이 박혔을 때는 공기가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 타이어가 납작해지기 쉬우며 자갈이 낀 상태로 오래 달리다 보면 소음이 심해지고 펑크가 날 수 있다.

### 2. 서스펜션

시내의 평탄한 아스팔트에서만 운전하던 차로 산과 계곡을 찾아 비포장을 신나게 달리고 난 후 다시 포장 도로 위로 올라섰을 때 차체가 흔들리고 핸들이 제방향을 못 잡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휠 얼라인먼트 이상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강한 충격을 받거나 모래가 많은 길을 달리다 보면 쇼크업소바가 진동하거나 서스펜션의 진동을 흡수하는 고무부시 사이에 모래가 끼어 빠져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다. 쇼크업소바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새 것으로 교환하고 고무부시에 낀 모래먼지를 깨끗이 털어 내며 작동부위에 그리스를 조금 발라준다.

### 3. 냉각수

오버히트를 잘 하는 여름철에는 냉각수가 부족해지기 쉽다. 보조탱크의 뚜껑이 열려있거나 작은 구멍이

난 경우에는 여유분의 냉각수가 새거나 말라버리기도 한다. 여름을 보낸 뒤에는 냉각수가 부족해지지 않았는지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 보고 보조탱크에 남아 있는 냉각수 양을 점검해 본다.

### 4. 벨트

강한 장력이 걸려 돌아가는 벨트류는 한여름을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난다.

벨트가 늘어나면 장력이 줄어들게 된다. 겨울철에 유난히 '삐익' 거리며 벨트 미끄러지는 소리를 내는 차가 많은 것도 여름철 늘어난 벨트 장력이 줄어들었다가 고무의 접착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날씨가 시원해지면 벨트의 장력을 점검하여 느슨해진 벨트를 제대로 조여주어야 한다.

### 5. 전기배선

엔진룸속의 부품중 더위 먹기 쉬운 부분이 전기배선이다. 새차일 때는 고무 피복이 씌어진 전기배선 여러 가닥이 배선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플라스틱 호스로 덧씌어져 있다. 하지만 몇 년에 걸쳐 차를 관리하면서 정비하고 나면 플라스틱 호스를 제거해 버리거나 배선용 테이프를 새로 감는 경우가 생긴다. 더운 여름철 엔진룸 열기는 매우 뜨거워 감겨진 테이프의 접착체를 녹이고 잘 감겨 있어야 할 테이프를 흐늘거리게 만든다. 풀린 배선 테이프는 다시 깔끔하게 감아주어야 한다.

### 6. 배터리 수명

배터리 점검도 여름을 지난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름보다 겨울이 심하다. 그러나 배터리 수명은 겨울보다 여름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나빠진 배터리가 겨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름을 지난 후 겨울을 맞기 전에는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교환해 주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 7. 엔진오일과 에어클리너

엔진오일 교환은 엔진관리의 기본이다. 여름철에는 엔진오일 교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오일이 묽어지고 변질되기 쉽다. 특히 디젤엔진은 높은 압력으로 공기를 압축해 폭발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빨리 더러워진다. 따라서 휘발유차보다 자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포장도로 등 먼지가 많은 길을 달린 후라면 특히 에어클리너의 점검에 주의해야 한다. 보통은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함께 교환하게 되지만 비포장도로를 달린 후라면 에어클리너를 평소보다 일찍 교환해주는 것이 엔진을 보호하는 길이다.

터보차저가 달린 차는 엔진오일과 에어클리너의 교환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터보차저의 프로펠러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어 엔진오일이 깨끗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쉽다.

## 8. 클러치

클러치 디스크는 여름철에 가장 마모가 심하다. 비포장길을 달리면 클러치를 많이 쓰게 되므로 마모정도를 확인한 뒤 적당한 때 클러치 디스크와 커버, 트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클러치가 닳은 정도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50%까지 연료를 더 소모하게 되므로 적당할 때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해 주는 것이 경제적이다. 클러치가 닳으면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줄어든다. 페달의 유격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면 클러치 디스크가 닳은 정도를 알 수 있다.

## 9. 하체 세차

자갈이 많은 길을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자갈이 튀어 언더보디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많다. 자갈이 부딪힌 곳은 코팅이 벗겨져 녹슬기 쉬우므로 언더 코팅을 하거나 라커칠을 해 두어야 프레임이 오래 견딜 수 있다.

## 10. 부식 방지를 위해 말끔하게 씻기

바닷가로 피서를 다녀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체와 엔진룸 세차를 해주어야 한다. 소금기가 많은 공기에 오래 노출되고 나면 프레임이나 하체의 금속부분이 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비가 많은 여름철 진흙탕이 된 비포장길을 달리고 난 뒤에도 하체와 엔진룸의 세차를 잊어서는 안 된다.

## 11. 실내 습기 제거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차안에 습기가 차기 마련이다. 실내에 습기가 오래 쌓이면 곳곳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퍼서 불쾌한 냄새가 나며 내장재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요즘에는 습기가 제거되는 에어컨이 많이 나와있지만 조금 오래된 차라면 실내 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맑은 날 햇빛 아래 차를 세운 뒤 창문을 활짝 열고 실내를 건조시킨다. 실내를 햇빛에 말리고 나면 습기로 인한 변형이나 트러블을 막을 수 있고 한층 상쾌한 기분으로 운전할 수 있다. 